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귀어·귀촌에서 귀어자의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01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신 나 혜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귀어·귀촌에서 귀어자의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도교수 박 종 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신 나 혜

신나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원장 교육학박사 강 버 들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미 영 (인)

위 원 공 학 박 사 박 종 운 (인)



목 차

Abstract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리	4
II. 이론적 배경	7
1. 귀어·귀촌의 현황	7
2. 귀어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
3. 선행연구의 고찰	32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33
2. 측정 도구	35
3. 자료 처리 방법	40
IV. 연구결과 및 논의	41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41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42
3. 귀어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57
4.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4

V. 결론	73
참고문헌	76
부록(설문지)	81



표 목 차

<표 I -1> 시도별 귀어가구 현황	8
<표 I -2> 귀어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	9
<표 I -3> 가구주의 성별 현황	9
<표 I -4> 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10
<표 I -5>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의 연령별 현황	11
<표 I -6>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의 성별 현황	12
<표 I -7> 귀어인의 전업·겸업 현황	13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표 III-2> 초기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35
<표 III-3> 재구성한 설문지 내용 및 문항 수	37
<표 III-4>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39
<표 IV-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42
<표 IV-2> 성별 귀어만족도 차이	43
<표 IV-3> 결혼여부별 귀어만족도 차이	44
<표 IV-4> 연령대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46
<표 IV-5> 연령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46
<표 IV-6> 학력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48
<표 IV-7> 학력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48
<표 IV-8>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50
<표 IV-9>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50
<표 IV-10>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52
<표 IV-11>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52

<표 IV-12>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54
<표 IV-13>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54
<표 IV-14>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56
<표 IV-15>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56
<표 IV-16>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에 따른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58
<표 IV-17>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에 따른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58
<표 IV-18>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에 따른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60
<표 IV-19>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에 따른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60
<표 IV-20>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62
<표 IV-21>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62
<표 IV-22> 변인 간 상관관계	65
<표 IV-23>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7
<표 IV-24>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9
<표 IV-25>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경제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1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7
-------------------	----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Return Fisherman's Satisfaction of Returning in Fishing-Returning and Rural-Returning

Hye-Na Shin

*Fisheries & Marine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 far, farming-returning and rural-returning have come to be very familiar to many people through active promotion, while fishing-returning and rural-returning are not well-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refore they have not readily chosen because of unfamiliar. Recently, on account of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increased interest in fishing-returning and rural-returning, the number of fishing-returning people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d analyze the factors of satisfaction impact on those who have already practiced fishing-returning people and to help and serve as a reference for potential returnees.

First, when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fishing-returning satisfaction, we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gender or marriage. However, depending on the ag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Those in their 30s and 50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economy than those in their 40s. We could se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each academic background, period of work, occupation before fishing-returning and period of returning. However, depending on the area of the fishing-return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Chungcheongnam-do was more satisfied with its economic than Gyeongsangnam-do.

Second, when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fishing-returning satisfaction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fishing-returning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town, residence of the acquaintance, visiting terms. The fishing-returning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average satisfaction.

Third, after verifying the impact of urban expulsion, fishery absorption, living environment, conflicts fishing-returning area, and family support on the satisfaction, living environment, conflicts fishing-returning area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urban expulsion factors, fishery absorption, and family support factor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urban expulsion factors, we found that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urban expulsion fac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economic fishery absorption fac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and that family suppor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ishing-returning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family support, the economic factor, the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higher the level of fishing-returning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정주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어촌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도시로 떠나게 되어 인구가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과소화 및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귀어·귀촌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박준모, 2014).

최근 해수부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귀어·귀촌희망자 5.1%(160만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개인 자아실현 및 일과 삶의 균형유지 등으로 어촌정착 희망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귀어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해수부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첫 번째는 경남 통영시 위치한 경상대학교, 두 번째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수산자원연구소에 선정하였고 세 번째로 전남 강진시에 선정하였다. 귀어학교와 같은 지원 정책은 도시민의 어촌 정착 수요가 증가 한다는 것을 뒤 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도시인구의 귀어의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귀어를 장려하

는 정책, 귀여지가 주는 거주 적합성, 환경적 요인,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 퇴직이 없는 평생 직업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젊은 층에서부터 은퇴자 까지 귀어를 결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으로 귀어·귀촌한 사람들은 현실적 괴리감에 의해 어촌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귀어 만족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이로 인해 어촌에서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탈어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귀어 만족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 역귀촌을 결정하게 된다. 귀어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귀어자가 자신의 귀어를 평가 할 때 성공적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역귀촌의 경향이 적을 것이다(이지흠, 2017).

2017년 귀어·귀촌 통계자료(해수부, 통계청)를 보면 40대 이하의 귀어가구원이 전체 귀어가구원의 5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젊은 층에서 방송매체와 귀어 성공사례를 통한 비즈니스화 된 어업을 하기 위해 귀어 또는 귀촌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 활성화되고 있는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에서 어업 경영체의 대표가 젊은 CEO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도시에서의 취업난과, 경제적 불확실성, 국가적 지원정책이 30-40대를 어촌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통해 앞으로의 귀어가 새로운 창업의 추세이며 젊은 층의 어촌 유입은 앞으로도 증가 될 것이다. 그동안 귀농·귀촌의 활발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개념으로 다가온 반면 귀어·귀촌은 홍보가 미흡하여 일반 도시민들에게 친숙하지 못한 개념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귀어·귀촌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알아보고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 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 귀어지 지역적 특성이 귀어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요인들로

인해 이미 귀어를 실친한 귀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향후 잠재적 귀어자가 귀어를 준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귀어·귀촌에서 귀어자의 귀어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귀어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 지지는 귀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리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가. 어촌

어촌의 사전적 의미는 어민(漁民)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로 갯마을, 포촌(浦村)을 말하며, 다양한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촌락을 기능에 의하여 분류한 것으로 대부분이 해변가에 분포하고 있으나 큰 호소(湖沼)나 하천·연안에도 발달한다. 바다, 강, 호수에서 어류, 패류, 조류 등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가공,제조 행위를 포함하는 수산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촌락의 총칭을 의미한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지리적·사회적 영역에 따라 이루어진 촌락으로서, 어장·어항과 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나. 귀어·귀촌

귀어인은 어촌 이외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귀촌인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귀농귀어촌법 제2조).

귀어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로부터 어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 이동을, 귀촌은 귀어를 포함하여 도시로부터 어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김정섭, 2009).

협의적인 의미는 어업을 위해 어촌으로 가는 ‘귀어’로, 광의적 의미는 귀어를 포함하여 어촌으로 삶의 장소를 옮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귀촌’으로 정의 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15).

다. 귀어자

현행 시행법상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후 농어업식품기본법)」 제29조의 2에서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으로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귀어자는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U턴은 어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갔다가 다시 어촌(고향)으로 이주한 것을 말하며, I턴은 도시에 살던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를 말하며, J턴은 어촌 출신 도시거

주자가 연고가 없는 타향(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귀어·귀촌센터 홈페이지).

라. 귀어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귀어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어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로부터 어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 이동을 한 귀어자로 정하였는 다. 귀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 개념을 이지흠(2017)의 귀농만족도 연구를 참고하여 주거환경, 귀어지갈등, 가족지지, 지역적 특성을 귀어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전반적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어촌생활 만족도를 귀어 만족도라고 하였으며, “귀어지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감정”으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귀어·귀촌의 현황

가. 귀어·귀촌의 일반적 현황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2017년 귀농 귀어·귀촌인 통계자료에는 귀어가구원은 1,359명으로 전년 1,338명보다 21명 (1.6%)증가하였다. 귀어 가구 규모는 906가구로 전년보다 23가구 감소하였고, 귀어가구의 평균 귀어 가구원수는 1.5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1) 시도별 귀어가구 현황

시도별로는 충남이 328가구(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285가구), 경남(92가구), 전북(83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귀어인 규모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충남 태안군(188명), 충남 보령시(105명), 인천 옹진군(62명), 전남 신안군(59명), 전북 부안군(4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 전 지역이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었는데, 다른 시도간의 이동이 많고, 수도권 지역에서 어업이 발달된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한 것으로 보아 귀어는 어촌의 새로운 생산인력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I -1> 시도별 귀어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p)

구분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906 (100.0)	- (0.0)	56 (6.2)	1 (0.1)	16 (1.8)	8 (0.9)	5 (0.6)	328 (36.2)	83 (9.2)	285 (31.5)	25 (2.8)	92 (10.2)	7 (0.8)
2016	929 (100.0)	1 (0.1)	59 (6.4)	1 (0.1)	19 (2.0)	13 (1.4)	3 (0.3)	286 (30.8)	76 (8.2)	345 (37.1)	23 (2.5)	83 (8.9)	20 (2.2)
증 감	-23 (0.0)	-1 (-0.1)	-3 (-0.2)	0 (0.0)	-3 (-0.2)	-5 (-0.5)	2 (0.3)	42 (5.4)	7 (1.0)	-60 (-5.6)	2 (0.3)	9 (1.3)	-13 (-1.4)
증감률	-2.5	-100.0	-5.1	0.0	-15.8	-38.5	66.7	14.7	9.2	-17.4	8.7	10.8	-65.0

출처 : 보도자료, 통계청 2018. 6. 28

(2) 가구 구성 형태

가구구성은 귀어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는 74.0%를 차지하였고, 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어 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26.0%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68.8%(623가구), 2인 가구는 19.4% (176가구)를 차지하였으며,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8.7% 감소하였으나 2인 가구는 23.1% 증가하였다. 혼자 어촌에 이주하는 수가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가구가 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이주 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 -2> 귀어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p)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2017년	906 (100.0)	623 (68.8)	176 (19.4)	59 (6.5)	48 (5.3)
2016년	929 (100.0)	682 (73.4)	143 (15.4)	57 (6.1)	47 (5.1)
증감	-23 (0.0)	-59 (-4.6)	33 (4.0)	2 (0.4)	1 (0.2)
증감률	-2.5	-8.7	23.1	3.5	2.1

(3) 가구주 현황

남자가 69.6%(631명)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구성비는 남자가 2.0% 감소하고, 여자는 2.0%p 증가하였다. 여자가구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자의 귀어관심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 -3> 가구주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2017년			2016년			증 감			증감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가구주	906	631	275	929	665	264	-23	-34	11	-25	-5.1	4.2
(구성비)	(100.0)	(69.6)	(30.4)	(100.0)	(71.6)	(28.4)	(0.0)	(-2.0)	(2.0)			

출처 : 보도자료, 통계청 2018. 6. 28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0.1세로 전년보다 1.1세 낮아 졌으며, 50대는 33.6%, 40대는 24.7%로 40~ 50대가 전체의 58.3%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연령별 구성비는 60대 이상에서 감소하였고, 30대~40대 연령층은 증가 하였다. 이것은 젊은 귀어자들이 창업의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주할 가능성도 높을 것 이라 예측된다.

<표 I -4> 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p, 세)

구분	합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평균연령
2017년	906 (100.0)	182 (20.1)	224 (24.7)	304 (33.6)	155 (17.1)	41 (4.5)	50.1
2016년	929 (100.0)	174 (18.7)	207 (22.3)	314 (33.8)	182 (19.6)	52 (5.6)	51.2
증감	-23 (0.0)	8 (1.4)	17 (2.4)	-10 (-0.2)	-27 (-2.5)	-11 (-1.1)	-1.1
증감률	-2.5	4.6	8.2	-3.2	-14.8	-21.2	

출처 : 보도자료, 통계청 2018. 6. 28

(4) 귀어자의 연령별 현황

통계청(2018)에 따르면 귀어자의 평균 연령은 50.3세로 전년보다 1.0세 낮아졌고, 연령층별로는 50대가 33.5%로 가장 높으며, 40대 24.6%, 30대 이하가 19.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연령별 구성비는 60대 이상에서 감소하였고, 30대~40대 연령층은 증가하였다. 동반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30.5세로 전년보다 1.6세 낮아졌고, 30대 이하가 65.8%로 가장 높으며, 50대 13.3%, 40대 9.5% 등의 순서였다. 30대 젊은 층의 귀어인구 증가는 어촌 삶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표 I -5>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p, 세)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연령
2017	귀어가구원	1,359 (100.0)	437 (32.2)	279 (20.5)	381 (28.0)	204 (15.0)	58 (4.3)	44.9
	귀어인	991 (100.0)	195 (19.7)	244 (24.6)	332 (33.5)	177 (17.9)	43 (4.3)	50.3
	동반가구원	368 (100.0)	242 (65.8)	35 (9.5)	49 (13.3)	27 (7.3)	15 (4.1)	30.5
2016	귀어가구원	1,338 (100.0)	396 (29.6)	256 (19.1)	384 (28.7)	229 (17.1)	73 (5.5)	46.5
	귀어인	1,005 (100.0)	188 (18.7)	220 (21.9)	337 (33.5)	203 (20.2)	57 (5.7)	51.3
	동반가구원	333 (100.0)	208 (62.5)	36 (10.8)	47 (14.1)	26 (7.8)	16 (4.8)	32.1
증감	귀어가구원	21 (0.0)	41 (2.6)	23 (1.4)	-3 (-0.7)	-25 (-2.1)	-15 (-1.2)	-1.6
	귀어인	-14 (0.0)	7 (1.0)	24 (2.7)	-5 (0.0)	-26 (-2.3)	-14 (-1.4)	-1.0
	동반가구원	35 (0.0)	34 (3.3)	-1 (-1.3)	2 (-0.8)	1 (-0.5)	-1 (-0.7)	-1.6

출처 : 보도자료, 통계청 2018. 6. 28

(4) 귀어자의 성별 현황

귀어인(991명) 중 남자(644명)가 65.0%를 차지하였고, 동반 가구원은 여자(193명)가 52.4%를 차지하였다.

<표 I -6>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2017년			2016년			증 감			증감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귀어가구원	1,359	819	540	1,338	813	525	21	6	15	1.6	0.7	2.9
	(100.0)	(60.3)	(39.7)	(100.0)	(60.8)	(39.2)	(0.0)	(-0.5)	(0.5)			
귀어인	991	644	347	1,005	683	322	-14	-39	25	-1.4	-5.7	7.8
	(100.0)	(65.0)	(35.0)	(100.0)	(68.0)	(32.0)	(0.0)	(-3.0)	(3.0)			
동반가구원	368	175	193	333	130	203	35	45	-10	10.5	34.6	-4.9
	(100.0)	(47.6)	(52.4)	(100.0)	(39.0)	(61.0)	(0.0)	(8.6)	(-8.6)			

(5) 귀어인의 전업과 겸업 현황

귀어인(991명)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711명(71.7%)이고, 다른 직업을 함께 보유한 겸업 귀어인은 280명(28.3%)이었으며, 전업 귀어인은 전년보다 32명(4.3%) 감소하였고 겸업 귀어인은 전년보다 18명(6.9%) 증가하였다. 어촌의 초기 정착기에 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겸업 귀어인이 많이 나타났을 경우가 있다.

<표 I -7> 귀어인의 전업·겸업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2017년			2016년			증 감			증감률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겸업
귀어인	991	711	280	1,005	743	262	-14	-32	18	-1.4	-4.3	6.9
(구성비)	(100.0)	(71.7)	(28.3)	(100.0)	(73.9)	(26.1)	(0.0)	(-2.2)	(2.2)	-	-	-

출처 : 보도자료, 통계청 2018. 6. 28

(6) 귀어인의 업종별 종사자

귀어인의 종사 업종은 어로어업(해수면어업)이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면어업은 4.4%, 양식어업은 2.8%를 차지하였다. 초기 귀어인이 쉽게 단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 어로어업이다 보니 어로어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귀어인이 귀어를 하여 양식어업에도 많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시도별 귀어·귀촌 현황

최근 3년간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귀어가구 수가 많았으며, 전국의 귀어의 약 78%를 차지한다.

(1) 충청남도 현황

귀어자는 17년 기준 13년 대비 1.61배 증가 하는 등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15년에는 51명 16년에는 50명 17년에는 88명 지원하였다. 창업 및 주택임대지원에 대한 실적은 낚시어선에 편중되고, 대출절차 등의 사유로 자금배정자 중 실질 대출은 72%에 불과하다. 어촌의 어업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가입요건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어촌계의 거주기간 가입요건은 1~5년이 전체어촌계의 69%를 차지하고 5년 이상이 31%를 차지한다. 어가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속에서도 어촌계수는 2008년 대비 25개소 증가 하였고, 어촌체험마을은 7개소 증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78개소 증가하였다. 충남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귀어자가 59.1%차지할 만큼 많고, 1~2인 가구의 귀어인구가 88.4%를 차지할 만큼 높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 귀어자의 여성비율이 11% 정도 높은 편이다. 귀어인의 낚시어업 비율이 매우 높아 업종의 다변화 유도가 필요하다.

(2) 전라남도 현황

전남 바다는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는 6,743km의 해안선, 전국 섬의 64.5%인 2,165개의 아름다운 섬, 전국 어업종사자의 34%인 4만 3,818명의 어민, 도내 1,200개 어촌, 해산물과 관광자원 보고인 청정 다도해지역을 갖고 있다. 17년 귀어가구는 285가구로 전년대비 60가구 감소하였다. 전남은 285가구로 전국의 31%를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귀어가구 15년 343가구 16년에 345가구 17년에 285가구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귀어가구원수 418명으로 전년대비 84명 감소하였고, 전국의 31%를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귀어가구원수는 15년에 500명 16년에는 502명 17년에는 418명이였다. 최근 3년간 전국 귀어가구는 900여명으로 변동 없고 15년도에는 전남과 충남이 비슷하였으나, 16년은 전남, 17년에는 충남으로 귀어하는 경향이 컸다. 귀어자는 대부분이 어선어업 등 어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남은 도시권(목포, 광주)과 연접한新安군이 귀어가구 증가를 주도했으나, 어촌계 진입장벽, 어업허가 억제 등으로 귀어가구 감소하였고, 최근 전복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완도, 해남 등에 귀어 기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촌계 진입장벽과 관계없고, 귀어자금이 적게 드는 남시어선어업 선호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귀어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최근 강지에 귀어학교 개설과 도시민 어촌유치사업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으로 귀어인 유치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3) 경상남도 현황

경남 어가인구는 2000년에 44,121명에서 2015년 22,609명으로 49% 감소

하였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의하면 경남 어촌계원의 평균연령은 63.3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성비구성은 남성 78.4%, 여성 21.6%로 나타나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귀어인은 2013년에 59명에서 2017년 9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총 91명의 인원을 선정하여 11,333백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총 714명의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최초 체류형 어업기술 교육을 위하여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다.

다. 해외의 귀어·귀촌 동향 및 정책

(1) 어업분야 신규취업자 확보 배경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어업 취업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있으며, 2013년에는 18.1만 명 중 60세 취업자가 49%, 65세 이상이 35%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한 수산업의 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촌 지역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원활한 세대교체에 지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젊고 의욕 있는 미래의 어업인을 어촌 지역에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

지역 유지 및 활성화와 원활한 기술의 승계를 위해서는 경험을 가진 지도자적 베테랑 어업자, 어업 조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중견 어업자, 체력과 새로운 발상인 신진 어업자가 고루 존재하는 “활력 있는 생산 구조”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장래를 담당하는 젊은 어업자를 매년 2천만 명 이상 확보한다면 어업 취업자 수의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2017년도

에는 노장과 중견, 신진의 균형을 이루어 “활력 있는 생산 구조”가 실현가능하다고 한다(이광남, 2015).

근래 어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어 있어 젊은이들의 유출과 어촌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과 동시에, 어촌의 활기를 잃어 어촌에 청년들을 불러들이기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도시 지역 등의 어촌 이외의 지역에는 어업 및 관련 산업에 관심이 젊은이도 적지 않다. 2014년에 실시된 도시 주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32%에 이르러 2005년에 비해 11%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에서 4할 가까운 사람이 농어촌지역에 정착할 마음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때문에 도시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촌 지역에 있어서도 자극이 되어 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인 연안어업이나 수산 가공업 등은 각각 규모가 작은 가족적 경영이 주류가 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일자리로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촌에 새로운 인재들의 일자리를 제공할겠다는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일본수산청 신규 어업취업자 정책

어업 종사자의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래에 걸쳐 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욕 있는 신규 어업 취업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희망자가 처음부터라도 원활하게 어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금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취업 상담회 등의 개최, 어업 현장에 따른 장기연수,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습득 등 구직자의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어업 취업과 정착하고 어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담당

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광남, 2015).

어업 취업을 위해 일본 도현 등의 어업 학교 등에서는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청년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의 어업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 취업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는 취업 준비 강습회나 어업담당자를 요구하는 수협·어업자와의 매칭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협·어업자와의 매칭을 도모한 어업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업 현장에서의 최장 3년간 장기 연수를 지원하고 새로운 어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리·세무, 유통 가공 어선 조업의 안전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젊은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신규 대졸자의 구인 구직개척에 적극적이고, 선원 구인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의 미스 매치 해소를 도모해야한다.

수산대학교에서 수산업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을 위한 수산에 관한 교육·연구를 추진하고, 교육 연구 환경의 내실화를 추진해야한다. 수산고교나 지역 수산업계가 제휴하여 장래의 지역 수산업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해야한다. 어선원 등을 대상으로 해양재난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산업 지도를 통한 연안 어업 상담지원 등에 의한 어업 기술 및 경영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대응을 촉진해야한다.

또한 어촌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여자의 자질 향상 등에 지원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전국 어업 취업자 확보 육성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업취업세미나/어업취업지원박람회/어업체험 등 관련 참여·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귀어자의 경우 어업연수제도를 활용하여 귀어·귀촌 전 어업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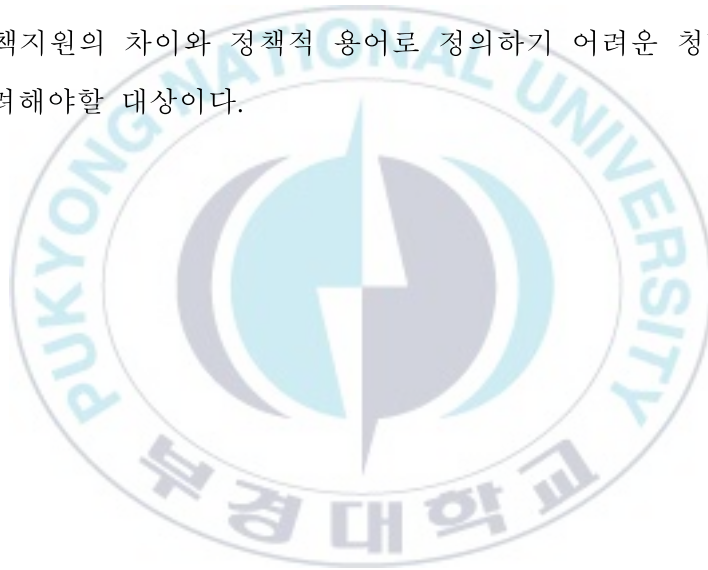
있다. 전국 어업 취업자 확보 육성 센터와 각 도도부현의 상담 창구에서 정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어업 취업자 확보 육성 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어업연수제도는 어업취업지원 박람회에 참가한 어업회사와 구직자간 1:1 매칭이 성립하면 일정기간 채용을 하여 기초적인 어업작업지도를 받는다. 어업연수제도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귀어자를 채용한 어업회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 취업을 전제로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라. 귀농·귀촌의 동향 및 정책

일반적으로 농업 인구유입은 전국 취업동향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경기가 좋으면 농업 인구는 줄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경향이 반대가 되어 농촌의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김한중, 2016), 2010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형 인구'는 93만명, 반대로 '향도형 인구'는 83만 명으로 나타났다(김정섭·임지은·박천수, 2012). 이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 인구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촌 인구'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해양수산부, 2016). 또한 귀농 가구 수는 2011년에 6,541가구, 2012년에 처음 1만 가구를 넘기고 2015년까지 1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고 귀촌 가구 수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연도별 가구수로 2014년 310,115가구, 2015년 329,368가구, 2016년 335,383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86,724가구, 경북 39,584가구, 경남 39,36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귀농인수는 50대-60대-40대-30대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방향을 농촌 유입위주에서 정착 위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그리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귀농·귀촌5개년 종합계획(2017년)을 수립하면서 귀농촉진 및 소득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을 하고자하고 있다. 의지있는 귀농인 중심 정책지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확대를 정책기조로 삼으며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이 꿈꾸는 농촌과 정책지원의 차이와 정책적 용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청년의 귀농·귀촌은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2. 귀어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의 대표적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이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최홍석, 1998; 이민관, 2011).

특히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이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은 이주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다. 수입, 고용가능성, 소득수준, 실업률, 이주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교육환경, 문화 인프라, 임대주택공급, 생활수준, 환경오염 등이다(이민관, 2011).

(1) 도시압출 요인

우성호(2014)는 통상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인구 이동의 원인을 흡인요인과 압출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요인들을 가리켜 '압출 요인'이라고 한다. 김상균(2012)은 도시압출요인으로 실직, 사업실패, 주거불안, 고물가, 환경문제의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귀어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인 귀농 관련 연구를 면밀히 살펴 본 결과, 귀어·귀촌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 도시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수입, 주택구매 비용과 도시의 높은 물가와 취업난이며, 둘째, 심리적 요인으로 도시 삶에 대한 싫증과 물가에 대한 부담감과 바쁜 도시 삶에 대한 회의이며,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 도시 내 환경오염, 도시 삶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문제, 삭막함 등이 귀어·귀촌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주관적인 인식이 귀어·귀촌 의사 결정의 주요 도시압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지흠, 2017).

(2) 어촌흡인 요인

윤순덕 외(2005)은 은퇴 후 어촌으로 귀어를 원하는 이유로는 삭막하고 바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건강한 삶을 살며 어촌에서 영어를 하며 살기위해가 다수였으며, 장년층 도시민이 은퇴 후 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에는 어촌의 환경적 흡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귀어흡인 요인도 이와 같이 귀어를 원하는 이유로 환경적 흡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Williams & Jobes(1990)은 귀어·귀촌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흡인 요인을 경제적 안정, 환경 요인(자연, 삶의 질), 심리적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어촌이주 결정 요인의 경우 전출지의 압출 요인보다는 전입지의 유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이희찬·김현, 2006). 이정관(1998)은 앞으로 기대되는 어업전망, 영어후계, 건강관리, 은퇴 후 노후 준비 등을 어촌흡인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박은경(2008)은 어촌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귀어·귀촌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마상진(2012)은 대다수의 귀어자가 대규모 어업은 아니더라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존 어업인 대비 작은 양은 규모의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정철영(1999)은 어업의 발전 가능성과 어촌 삶에 대한 동경이 귀어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였다. 젊은 층에서는 어촌에서 도시로의 전출자가 많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도시에서 어촌으로의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다(김경덕, 2003). 송미령(2006) 연구에서는 시골 출신이며, 어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희찬·김현(2006)은 어촌으로 이주하는 요인을 어

촌기반 요인, 어촌자연 요인, 도시환경 요인, 취업환경 요인, 어촌경험 요인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이중에서 어촌기반과 취업환경 요인들이 어촌으로의 이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인현(2011)은 귀어를 창업의 한 형태로 이해했으며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 했다. 결과는 귀어에 어업이나 어촌에 대한 관심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귀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창출문제, 자녀양육문제, 어업 기술 습득문제, 의료복지시설 부족이 귀어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업이나 어촌에 대한 관심은 귀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균(2012)은 어업의 미래 전망, 귀어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전원생활에의 전망, 개인의 건강과 웰빙, 연고지를 어촌흡인요인으로 이야기했다.

선행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귀어·귀촌의 동기에는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쾌적함 등의 환경적인 부분과 어촌의 여유 있는 생활과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귀어를 통해 안정적인 삶, 퇴직 실직의 우려가 없는 도시의 삶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한 흡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어촌으로 흡인 요인을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나. 귀어지 주거환경

김유일(1988)은 주거만족도는 안전성, 편리성, 평면 배치, 일조, 전망, 난방 등의 물리적인 특성과 소득, 직업, 학력, 나이, 거주기간 등 가구특성이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종혁 외(2012)는 귀어·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은 어촌의 인구감소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마을이 생겨나는 때에 다행스러

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문제를 주택 공급 문제만이 아닌 공동체 문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귀어의 이유는 깨끗한 자연환경,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자급자족, 도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독립된 생활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귀어·귀촌 시 ‘귀어지의 원주민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어서’가 주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인 외(2011)는 귀어·귀촌 후 정착 시 의료 환경, 문화시설 등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 미비로 인해 어려움 겪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편의 서비스의 부족, 자녀교육 일자리 문제 등이 도시민의 애로사항이라 주장하였다.

지어성(2010)은 어촌 지역 노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구특성,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환경 및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등을 조사하여 현행 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문제점 및 추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환경이 포함하는 내용은 생명을 유지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것(안전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건성), 일상생활에 특별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편리성),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쾌적성), 나아가 자신 이외의 특히 차세대 이후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기본이념은 1961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제안 되었다(강미나, 2007).

주우일 외(2008)는 주거환경 질 지표를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으로 분류하였다. 신상영 외(2008)도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귀어지 갈등 관련 연구

갈등(葛藤)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을 이른다(네이버 국어사전).

귀어·귀촌인들이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의 핵심은 갈등 발생 여부에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이유에서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갈등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어·귀촌인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구성원의 다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 지역주민과 귀어·귀촌인 간의 갈등이 어촌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은 결국 귀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귀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하는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귀어만족에 중요한 귀어지 갈등 변인으로 심리적 갈등과 환경적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리적 갈등

일반적인 갈등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목표의 차이, 의사소통차이, 희소자원 획득 경쟁, 지각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장동운, 1997). ‘목표의 차이’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 간에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대상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장동운, 1997). ‘희소자원 획득 경쟁’은 희소한 가치나 재화 또는 물질적, 비물질적자원의 획득과 이용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조직 사이에서 유발된 경쟁을 의미한다(장동운, 1997; 박명현, 2004). 최해진(2004)은 ‘의사소통차이’는 개인 혹은 집단,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생각이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성원 간의 목표 및 지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지각의 차이’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의미한다(박명현, 2004). 박호숙(2008)은 심리적 갈등이란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상호 대립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동기가 부여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이상의 강한 동기의 유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흔히 사용하는 심리적 갈등이란 개인 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반응적 경향을 의미한다고 보아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요구, 가치, 욕구 및 목표에 당면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즉, 심리적 갈등은 대립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욕구나 충동이 동일한 개체 내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상반되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2) 환경적 갈등

환경갈등(environmental conflict)이란 환경을 둘러싼 갈등, 즉 이해 또는 가치의 대립·상충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갈등을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환경적 가치와 이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호배타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홍준영, 2010).

환경갈등 역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이나 내용면에서 볼 때 생태계 훼손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관한 다툼과 입지갈등을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홍준영, 2010).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역자원의 배분 문제와 같은 이해관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논리를 펴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역 자원의 이해 배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에 비교해 지역 환경 문제에 관련한 논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부류가 존재 한다(홍준영, 2010).

1990년대 미국의 도시에서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환경문제, 지역의 인구 성장, 경제발전이나 관광개발과 같은 지역발전 이슈들과 관련된 가치관이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과 매우 달라서 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Smith & Krannich, 2000). 미국 메인 주에서 환경보전과 성장이슈 간의 갈등(Ploch, 1977), 미국 남부 아팔래치아 산맥에 사는 원주민들과 귀어·귀촌인들이 겪는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연구에서도 귀어·귀촌인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환경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원주민과의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집단 간의 가치 우위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Buttel, 1992; Jobes, 2000; 이연주, 2008: 221-222 재인용).

지역주민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지역이 변화되기를 희망하지만, 귀어·귀촌인들은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로 개발수위와 지역자원의 이용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Schwarzeweller, 1979; Smith & Krannich, 2000).

반대로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귀어·귀촌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면서 도시적인 토지이용과 상업적 공간으로 개발하려 할 때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발논의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지역개발 및 환경파괴에 반대함으로 그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원주민의 의식을 보여준다(Brown-Saracino, 2004).

라. 가족 지지도에 관한연구

가족지지도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순조롭게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했다(권은희, 2003).

박선영(2013)은 긍정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및 희망의 수준이 높아지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희망도 증가한다고 했으며 우울감의 증가는 가족의 지지 경험뿐 아니라 희망도 감소시킨다고 이야기했다. 김현실과 조미여(1992)는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며 조력자가 되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 내적인 긴장과 외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얻으며 이와 같은 완충작용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의미 있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학자는 가족을 하나의지지 체제로 보고 가족은 상호작용하며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일생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백영남, 2005). 또한, 지지체계로서 가족은 전체성을 지닌 개방체계로 역동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정보, 에너지,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규범으로 안정된 지지와 사랑을 서로 교환하고, 협조하는 능력을 갖추며, 위기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생동안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높게 기여한다고 하였다(김숙정, 1987). 홍순혜(1999)는 정서적 지지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가족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활동적 지지는 구성원과 함께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것, 도구적 지지는 아플 때 시중을 들며, 집안일을 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금전적 지지는 용돈, 생활비,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

다. 이미란(2011)은 가족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가족의 신뢰, 의지, 의견존중, 고민해결, 조력 등으로, 도구적 지지는 가족의 일상적 조력, 물질적 도움, 경제적 도움, 병간호 및 수발 등으로 측정하였다. 김순안(2012)는 가족의 감정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우울감을 낮추는 요인이라 주장했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불만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Dumitrache, C. G., Rubio, L., & Rubio-Herrera, R. 2017).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저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고미숙, 2015; 엄태완 외, 2008; 정승현, 심미영, 2014).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부정적 심리상태에 노출되었을 때 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Weinberger et al., 1990). 그리고 사회적지지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지지이다.

마. 지역적 특성에 관한연구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민들의 어촌 공간 선호는 지역간에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김창현 외 2008).

어촌이주 후 과정에서 귀어인들의 어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사회적 지원관계, 어촌생활 인식정도 등의 요인이 있다(허철무 2013). 박지원(1985)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친척,친구,이웃,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인 도움, 정보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평가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여 사회적지지라고 하였다. 윤순덕 외(2005)은 귀어지를 결정짓는 것이 연고지라고 설정하였다. 송미령(2006), 김정호·마상진(2006)의 연구에서도 어촌출신이면서 어업경험이 있는 사람

이 영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귀여지가 고향과 관련이 있으면 어촌출신일 경우가 크며, 귀여지에 지인이 있고 자주 왕래하였다면 어업에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외(2012)는 귀어자의 약 75%가 귀어 지역 선택이유가 고향과 관련되고 지인이 있어서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바. 귀어 만족도에 관한 연구

귀어에 대한 만족은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활 만족이란 전반적인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 정도의 의미로 표현한다(서병숙 외, 1995).

김태현(1995)은 생활만족도가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은퇴한 시니어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되면서 정신건강, 노화, 적응의 지표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임혜영(1999)은 관계성 요인 지역주민과의 교류, 환경적 요인으로 교통 및 접근성, 환경, 주변 상업 시설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박광희와 한혜경(2002)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의기존의 요인 이외에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조영숙(2004)은 주거환경, 교육인프라, 교통환경, 여가환경, 이웃과의 관계성, 경제적 요인을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허철무(2014)는 어촌 생활만족도는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선 연구의 결과로 사회 인구학적 요인, 어촌 이주 전 요인, 어촌 이주 후 요인에 따라 귀어자의 어촌 생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 후 귀어인의 어촌 생활 만족도는 현재 건강상태, 영어교육, 어촌 이주 자금, 이웃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2008)는 나이가 젊고 귀어 준비 기간이 길고 충분할수록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과 비교하면 고졸 일수록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했다.

우성호(2013)는 귀어·귀촌의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어촌의 흡인 요인이 도시압출 요인보다 의사 결정 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여건과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귀어만족도 중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귀어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령 또는 성별, 건강상태, 교육 정도, 경제상태, 가족 구성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허철무, 하규수, 2014).

3. 선행연구의 고찰

귀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여 앞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귀농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지흠(2017)은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고, 가족지지는 귀농만족과 추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이는 가족의 지지가 없는 귀농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귀농자와 귀농의사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현재의 귀농 교육을 귀농자 위주의 교육이며 귀농자 가족을 대상의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은 마지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해서 가는 의미 있는 제2의 삶의 기회가 되어야 하나고 하였다.

허철무(2013)는 개인적특성, 정착적요인, 지역상황적 특성에 따라 귀농만족도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하였으며. 경제적지원은 전반적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지역문화는 전반적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기업관심은 전반적 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결과는 경제적지원과 관련기관관심이 귀농만족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농희망자에 대한 지역자체단체의 경제적지원과 관심이 귀농실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이미 귀어를 한 귀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촌어항협회의 산하에 있는 귀어·귀촌센터에 협조를 구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전국 어업인 워크숍 및 협의회에 참석한 어업인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에 300부를 배부하여 작성결과를 수거하였다. 그중 253부를 회수하였으며 무응답 및 다중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9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기혼(72.7%)이 미혼(27.3%)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50대(31.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이상(각각 27.3%), 3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41.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29.2%), 초대졸(26.3%), 대학원졸(3.3%)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3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년 이상(31.1%), 20년 이상~30년 미만(23.4%), 1년 이상~10년 미만(10.5%)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 전 직업은 회사원(37.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29.7%), 전문직(23.4%), 자영업(9.6%)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 지역은 경상남도(35.4%)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33.0%), 전라남도(31.6%)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4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 이상~4년 미만(32.1%), 4년 이상~6년 미만(17.2%), 6년 이상(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9	80.9
	여성	40	19.1
결혼여부	기혼	152	72.7
	미혼	57	27.3
연령대	30대	30	14.4
	40대	57	27.3
	50대	65	31.1
	60대 이상	57	27.3
학력	고졸 이하	86	41.1
	초대졸(재학)	55	26.3
	대졸(재학)	61	29.2
	대학원졸(재학)	7	3.3
직장생활 기간	1년 이상~10년 미만	22	10.5
	10년 이상~20년 미만	73	34.9
	20년 이상~30년 미만	49	23.4
	30년 이상	65	31.1
귀어 전 직업	공무원	62	29.7
	회사원	78	37.3
	전문직	49	23.4
	자영업	20	9.6
귀어 지역	경상남도	74	35.4
	전라남도	66	31.6
	충청남도	69	33.0
귀어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91	43.5
	2년 이상~4년 미만	67	32.1
	4년 이상~6년 미만	36	17.2
	6년 이상	15	7.2
전체		209	100.0

2. 측정 도구

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귀어·귀촌에서 귀어자들의 귀어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귀어 희망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지흠(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단어 문맥을 수정하고 귀어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여 우성호(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를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몇 군데 수정절차를 거쳐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영역에 따른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초기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수

변인	내용 또는 하위변인	문항수	출처	척도
일반적 특성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장생활 기간, 직업, 귀어 지역, 귀어 기간	8	연구자 작성	명목 척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		4	우성호(2013)	
도시압출요인	경제적 요인	4	이지흠(2017)	Likert 5점 척도
	심리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3		
어촌흡인요인	경제적 요인	4		
	심리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3		
귀어지 주거환경	안전성	4		
	편리성	6		
귀어지 갈등	심리적 갈등	4		
	환경적 갈등	3		
가족지지		4		
귀어 만족도		5		
전체		58		

나.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방법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도시압축요인이 2개 요인(경제적 요인, 심리·환경적 요인)으로 묶였으며, 어촌흡입요인도 2개 요인(경제적 요인, 심리·환경적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압축요인 중 심리·환경적 요인과 귀어지 주거환경 중 안전성 요인이 동일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어지 갈등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어 만족도는 2개 요인(생활만족, 경제적 만족)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압축요인과 어촌흡입요인은 2개 요인(각각 경제적 요인, 심리·환경적 요인)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귀어지 주거환경은 안전성 문항을 삭제하고 편리성 문항만을 사용하여 1개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귀어지 갈등도 1개 요인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귀어 만족도는 2개 요인(생활만족, 경제적 만족)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설문지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III-3>과 같으며,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표 Ⅲ-3> 재구성한 설문지 내용 및 문항 수

변인	내용 또는 하위변인	문항수	출처	척도
일반적 특성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장생활 기간, 직업, 귀어 지역, 귀어 기간	8	연구자 작성	명목 척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		4	우성호(2013)	
도시압출요인	경제적 요인	4	이지흠(2017)	Likert 5점 척도
	심리·환경적 요인	6		
어촌흡인요인	경제적 요인	4		
	심리·환경적 요인	6		
귀어지 주거환경		6		
귀어지 갈등		7		
가족지지		4		
귀어 만족도	생활만족도	2		
	경제적만족도	3		
전체		54		



[그림 1] 연구모형

재구성한 측정문항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III-4>에 제시되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시압출요인 10문항(경제적 요인 4문항, 심리·환경적 요인 6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간주한다(홍세희, 2008).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36(경제적 요인 .708, 심리·환경적 요인 .852)으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Cronbach's α 계수가 .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Moss et al, 1998).

어촌흡인요인 10문항(경제적 요인 4문항, 심리·환경적 요인 6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55(경제적 요인 .762, 심리·환경적 요인 .854)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귀여지 주거환경 6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50으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귀여지 갈등 7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71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가족지지 4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707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귀어만족도 5문항(생활만족도 2문항, 경제적만족도 3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798(경제적 요인 .735, 심리·환경적 요인 .865)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Ⅲ-4>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구성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1	2	3	4	5	6	7	8	9	
압출1					.761		.144		.208	.708
압출2	.189	.289		.186	.663				-.169	
압출3	-.213		.152		.463	.274	.162		.487	
압출4	.157		.129		.646	.210	.283			
압출5	.169	.185				.804	.278			.836
압출6	.418	.127	.181			.639				
압출7			.290	.303	.190	.588	.134		-.255	
압출8	.406	.162	.118		.207	.653		-.132	.142	
압출9	.341	.162		.183	.454	.493	-.132		.114	.852
압출10	.460	.159	.216	.261	.217	.492			.108	
흡인1	.305			.192	.262		.582	.139	.123	
흡인2	.246	-.139	-.101		.256	.238	.568	.200	.343	
흡인3				.196			.762	.104		.762
흡인4	.155		.168	.417	.104		.630		-.203	
흡인5	.647	.139		.123	.111	.136	.272		.189	
흡인6	.498					.125	.540		.117	
흡인7	.602					.311	.350		.101	.854
흡인8	.695		.174			.330		.111		
흡인9	.812		.128		.220					
흡인10	.782									
주거5			.702		.142	.116	.103	.207	-.230	.850
주거6			.797	.172		.164				
주거7		.117	.784				.220	.141		
주거8	.150	.124	.770	.172	.201	.178		-.162	.119	
주거9	.172		.741	.109	.168	.258	-.172		.153	
주거10	.436		.478		-.132			.260	.197	
갈등1		.810							-.114	.871
갈등2		.831				.113				
갈등3		.678	-.124		-.218			.177	-.366	
갈등4	.136	.693		-.231	.138				.148	
갈등5		.688	.206		.106	.201	-.104		.209	
갈등6	.155	.774	.168	.171						
갈등7		.693		.135	.186	.103	-.222			
가족1	-.179	.151	-.134	.206			.198	.679		.707
가족2	.140		.206				.162	.773		
가족3	.162	-.105	.145		.467			.628		
가족4	.295		.164	.186	.534		-.184	.420		
만족1	.314		-.122	.337				.417	.421	.735
만족2	.206			.312	.135			.449	.576	
만족3				.787			.126	.106		
만족4			.149	.860			.100	.152		.865
만족5			.127	.837			.154		.119	
고유값	9.043	4.416	3.287	2.888	2.252	1.977	1.771	1.382	1.103	.904
분산비율(%)	21.530	10.514	7.827	6.877	5.362	4.707	4.217	3.291	2.625	
누적분산(%)	21.530	32.044	39.871	46.748	52.110	56.817	61.035	64.325	66.951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 수집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귀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귀어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가족지지는 귀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의 응답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독립변인인 도시압출요인 전체는 평균 2.68점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경제적도시압출요인은 2.59점, 심리·환경적도시압출요인은 2.7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어촌흡인요인 전체는 3.24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경제적어촌흡인요인은 3.16점, 심리·환경적어촌흡인요인은 3.3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귀어지 주거환경(2.93점)과 귀어지 갈등(2.71점)은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족지지는 3.31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종속변인인 귀어만족도 전체는 3.49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귀어생활만족도는 3.70점, 귀어경제적만족도는 3.2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표 IV-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독립 변인	경제적 도시압출요인	209	1	5	2.59	.855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	209	1	5	2.76	.884
	도시압출요인 전체	209	1	5	2.68	.733
	경제적 어촌흡입요인	209	1	5	3.16	.794
	심리환경적 어촌흡입요인	209	1	5	3.31	.813
	어촌흡입요인 전체	209	1	5	3.24	.689
	귀어지 주거환경	209	1	5	2.93	.904
	귀어지 갈등	209	1	5	2.71	.797
	가족지지	209	1	5	3.31	.775
	귀어생활만족도	209	1	5	3.70	.819
종속 변인	귀어경제적만족도	209	2	5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209	2	5	3.49	.714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가. 성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성별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귀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분석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성별 귀어만족도 차이

구분		N	M	SD	t
생활만족도	남성	169	3.68	.784	-.548
	여성	40	3.76	.961	
경제적만족도	남성	169	3.26	.876	-.849
	여성	40	3.39	1.024	
귀어만족도 전체	남성	169	3.47	.665	-.712
	여성	40	3.58	.895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귀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귀농자를 대상으로한 이지흠(2017)과 허철무(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성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어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남성의 귀어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을 거라는 인식과 달리 여성의 귀어만족도가 남성과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 귀어만족도가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촌에서 어업 장비의 현대화로 인해 여성이 어업활동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성의 귀어만족도를 높이는 이유라

고 사료된다.

나. 결혼여부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귀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분석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결혼여부별 귀어만족도 차이

구분		N	M	SD	t
생활만족도	기혼	152	3.69	.828	-.318
	미혼	57	3.73	.802	
경제적만족도	기혼	152	3.21	.945	-1.943
	미혼	57	3.46	.766	
귀어만족도 전체	기혼	152	3.45	.719	-1.300
	미혼	57	3.60	.694	

본연구의 결혼여부별 귀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귀농자를 대상으로한 이지흠(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 귀어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도시에 가족을 나누고 우선 혼자 '1인가구'로 어촌에 귀어하는 형태가 많다는 통계 결과와 같이 결혼여부는 귀어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연령대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연령대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연령별 귀어만족도는 Wilks' λ =.943($F=2.038$, $df=6$, $p=.060$)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귀어만족도 전체에서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위변인 중 경제적만족도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30대($M=3.57$)와 50대($M=3.56$)가 40대($M=2.99$)보다 경제적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4>와 같으며, 중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4> 연령대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연령대	N	M	SD
생활만족도	30대 (a)	30	3.83	.686
	40대 (b)	57	3.59	.887
	50대 (c)	65	3.72	.853
	60대 이상(d)	57	3.71	.779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30대 (a)	30	3.57	.858
	40대 (b)	57	2.99	.825
	50대 (c)	65	3.46	.922
	60대 이상(d)	57	3.22	.916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30대 (a)	30	3.70	.539
	40대 (b)	57	3.29	.681
	50대 (c)	65	3.59	.761
	60대 이상(d)	57	3.46	.734
	전체	209	3.49	.714

<표 IV-5> 연령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λ	Wilks'						
		F	df	p	F	df	p	Scheffe
전체	.943	2.038	6.000	.060				
생활만족도					.431	3	.591	-
경제적만족도					3.165	3	.008	a, c > b
귀어만족도 전체					1.434	3	.032	N.S

본연구의 연령별 귀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귀농자를 대상으로한 이지흠(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귀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도와 경제적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0대의 경제적 만족도가 30대와 50대보다 낮다고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40대 귀어자의 자녀의 연령이 중·고등학생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준비 비용부담이 큰 40대가 경제적 지출이 가장 크므로 귀어난 후 수입에 대한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30대와 50대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은 30대는 미혼의 비율이 높고, 50대는 은퇴 후 귀어난 사람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라. 학력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학력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학력별 귀어만족도는 Wilks' Λ =.960($F=1.412$, $df=6$, $p=.208$)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 모두 학력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6>과 같으며, 중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6> 학력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학력	N	M	SD
생활만족도	고졸 이하(a)	86	3.58	.873
	초대졸(재학)(b)	55	3.88	.739
	대졸(재학)(c)	61	3.67	.806
	대학원졸(재학)(d)	7	4.00	.645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고졸 이하(a)	86	3.21	.912
	초대졸(재학)(b)	55	3.43	.890
	대졸(재학)(c)	61	3.19	.924
	대학원졸(재학)(d)	7	3.81	.504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고졸 이하(a)	86	3.39	.733
	초대졸(재학)(b)	55	3.66	.613
	대졸(재학)(c)	61	3.43	.759
	대학원졸(재학)(d)	7	3.90	.528
	전체	209	3.49	.714

<표 IV-7> 학력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λ	F	df	p	F	df	p	<i>Scheffe</i>
전체	.960	1.412	6.000	.208				
생활만족도					1.927	3	.126	-
경제적만족도					1.698	3	.169	-
귀어만족도 전체					2.497	3	.061	-

본연구의 학력별 귀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귀농자를 대상으로한 이지흠(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학력별 귀어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촌 적응능력은 학력에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귀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 할 수있다. 그 이유는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귀어자들이 귀어하기 전에 고소득의 직업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귀어준비 자금이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귀어 만족도가 다른 학력과 비교하여 높지 않는 것은 고학력이지만 귀어후 어촌의 어업인들과 교류와 공감의 낮아서 귀어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마.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는 Wilks' $\lambda=0.965$ ($F=1.222$, $df=6$, $p=.294$)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생활 기간별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 모두 직장생활 기간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8>과 같으며, 중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8>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직장생활	N	M	SD
생활만족도	1년 이상~10년 미만(a)	22	3.52	.809
	10년 이상~20년 미만(b)	73	3.79	.777
	20년 이상~30년 미만(c)	49	3.77	.693
	30년 이상(d)	65	3.61	.946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1년 이상~10년 미만(a)	22	3.08	.976
	10년 이상~20년 미만(b)	73	3.20	.848
	20년 이상~30년 미만(c)	49	3.48	.866
	30년 이상(d)	65	3.30	.962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1년 이상~10년 미만(a)	22	3.30	.771
	10년 이상~20년 미만(b)	73	3.49	.682
	20년 이상~30년 미만(c)	49	3.62	.652
	30년 이상(d)	65	3.46	.769
	전체	209	3.49	.714

<표 IV-9>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λ	Wilks'	F	df	p	F	df	p	<i>Scheffe</i>
전체	.965	1.222	6.000	.294					
생활만족도						1.001	3	.393	—
경제적만족도						1.369	3	.253	—
귀어만족도 전체						1.126	3	.340	—

사회생활을 오래한 사람이 어촌에 적응력이 높고 귀어 자본금을 모았을 가능성이 커 귀어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직장생활 기간별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는 Wilks' $\lambda=.949$ ($F=1.790$, $df=6$, $p=.100$)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귀어 전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 모두 귀어 전 직업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10>과 같으며, 중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0>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귀어 전 직업	N	M	SD
생활만족도	공무원(a)	62	3.5726	.85338
	회사원(b)	78	3.8846	.79741
	전문직(c)	49	3.5918	.75466
	자영업(d)	20	3.6250	.87170
	전체	209	3.6986	.81897
경제적 만족도	공무원(a)	62	3.3763	.90432
	회사원(b)	78	3.3504	.94112
	전문직(c)	49	3.1769	.74256
	자영업(d)	20	2.9833	1.08942
	전체	209	3.2823	.90497
귀어만족도 전체	공무원(a)	62	3.4745	.72217
	회사원(b)	78	3.6175	.73296
	전문직(c)	49	3.3844	.61751
	자영업(d)	20	3.3042	.79254
	전체	209	3.4904	.71367

<표 IV-11> 귀어 전 직업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Wilks'				ANOVA			
	λ	F	df	p	F	df	p	Scheffe
전체	.949	1.790	6.000	.100				
생활만족도					2.199	3	.089	-
경제적만족도					1.326	3	.267	-
귀어만족도 전체					1.666	3	.176	-

본 연구에서 귀어전의 직업별 귀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이지흠(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귀농자를 대상으로 허철무(2013)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문직이 회사원보다 귀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이 회사원보다 평균 정년이 길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회사원보다 귀어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선택한 귀어가 중도에 포기를 할 수 있는 현상이 오히려 역귀어를 통해 충분히 도시로 돌아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는 Wilks' λ =.920(F =4.357, df =6, p =.002)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귀어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만족도는 귀어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충청남도(M =3.55)가 경상남도(M =2.99)보다 경제적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만족도 전체도 귀어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충청남도(M =3.61)가 경상남도(M =3.31)보다 귀어만족도 전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는 귀어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12>와 같으며, 중다변

량분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2>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귀어 지역	N	M	SD
생활만족도	경상남도(a)	74	3.64	.845
	전라남도(b)	66	3.80	.911
	충청남도(c)	69	3.67	.690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경상남도(a)	74	2.99	.963
	전라남도(b)	66	3.34	.866
	충청남도(c)	69	3.55	.790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경상남도(a)	74	3.31	.762
	전라남도(b)	66	3.57	.776
	충청남도(c)	69	3.61	.552
	전체	209	3.49	.714

<표 IV-13> 귀어 지역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Wilks'							
	λ	F	df	p	F	df	p	Scheffe
전체	.920	4.357	4.000	.002				
생활만족도					.810	2	.446	-
경제적만족도					7.441	2	.001	c > a
귀어만족도 전체					3.768	2	.025	c > a

충청남도가 경상남도보다 경제적 귀어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경상남도의 어업면허권 취득 값이 다른 지역들보다 비싸서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유추한다. 충청남도는 타지역에 비해 귀어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는데, 여성의 귀어만족도의 상승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고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거리적으로 가깝고 양식업 보다는 어업이 단기적 수입을 올리기 쉬운데 충청남도의 귀어자가 낚시어업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장기적 경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에 한정하지 않고 어촌관광·서비스업으로 확대를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는 Wilks' λ =.960(F =1.400, df =6, p =.213)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귀어 기간별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 모두 귀어 기간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14>와 같으며, 중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4>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귀어 기간	N	M	SD
생활만족도	1년 이상~2년 미만(a)	91	3.60	.787
	2년 이상~4년 미만(b)	67	3.76	.795
	4년 이상~6년 미만(c)	36	3.69	.980
	6년 이상	15	4.00	.655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1년 이상~2년 미만(a)	91	3.27	.921
	2년 이상~4년 미만(b)	67	3.23	.971
	4년 이상~6년 미만(c)	36	3.19	.758
	6년 이상	15	3.82	.700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1년 이상~2년 미만(a)	91	3.44	.730
	2년 이상~4년 미만(b)	67	3.50	.726
	4년 이상~6년 미만(c)	36	3.44	.696
	6년 이상	15	3.91	.485
	전체	209	3.49	.714

<표 IV-15> 귀어 기간별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b)OVA				ANOVA			
	λ	F	df	p	F	df	p	<i>Scheffe</i>
전체	.960	1.400	6.000	.213				
생활만족도					1.213	3	.306	—
경제적만족도					2.020	3	.112	—
귀어만족도 전체					2.006	3	.114	—

귀어에 만족하였으면 귀어를 포기하지 않고 귀어를 하고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귀어 기간이 길수록 귀어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귀어기간별 귀어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앞으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귀어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가.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별 귀어만족도는 Wilks' λ =.763(F =7.331, df =8, p =.000)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그렇다(M =4.03)가 전혀 아니다(M =3.29)와 아니다(M =3.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M =4.10)는 전혀 아니다(M =3.29), 아니다(M =3.27), 보통이다(M =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만족도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보통이다(M =3.36), 그렇다(M =3.61), 매우 그렇다(M =3.43)가 전혀 아니다(M =2.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만족도 전체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보통이다(M =3.46)가 전혀 아니다(M =2.95)보다 높았으며, 그렇다(M =3.82)와 매우 그렇다(M =3.77)가 전혀 아니다(M =2.95)와 아니다(M =3.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16>과 같으며, 중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6>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에 따른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고향 관련	N	M	SD
생활만족도	전혀 아니다(a)	28	3.29	1.101
	아니다(b)	37	3.27	.703
	보통이다(c)	51	3.57	.755
	그렇다(d)	49	4.03	.624
	매우 그렇다(e)	44	4.10	.625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전혀 아니다(a)	28	2.62	.763
	아니다(b)	37	3.06	.916
	보통이다(c)	51	3.36	.800
	그렇다(d)	49	3.61	.774
	매우 그렇다(e)	44	3.43	1.000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전혀 아니다(a)	28	2.95	.565
	아니다(b)	37	3.17	.686
	보통이다(c)	51	3.46	.632
	그렇다(d)	49	3.82	.611
	매우 그렇다(e)	44	3.77	.711
	전체	209	3.49	.714

<표 IV-17>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 관련)에 따른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λ	Wilks'			F	df	p	<i>Scheffe</i>
		F	df	p				
전체	.763	7.331	8.000	.000				
생활만족도					11.131	4	.000	d > a, b e > a, b, c
경제적만족도					7.061	4	.000	c, d, e > a
귀어만족도 전체					12.426	4	.000	c > a d, e > a, b

나.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별 귀어만족도는 Wilks' $\lambda=.770(F=7.087, df=8, p=.000)$ 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만족도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보통이다($M=3.16$)가 전혀 아니다($M=2.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M=3.68$)는 전혀 아니다($M=2.49$), 아니다($M=2.87$), 보통이다($M=3.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M=3.65$)는 전혀 아니다($M=2.49$), 아니다($M=2.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만족도 전체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그렇다($M=3.82$)가 전혀 아니다($M=3.14$), 아니다($M=3.24$), 보통이다($M=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18>과 같으며, 중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8>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에 따른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지인 거주	N	M	SD
생활만족도	전혀 아니다(a)	19	3.79	.805
	아니다(b)	33	3.62	.820
	보통이다(c)	63	3.51	.780
	그렇다(d)	56	3.96	.702
	매우 그렇다(e)	38	3.66	.973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전혀 아니다(a)	19	2.49	.804
	아니다(b)	33	2.87	.687
	보통이다(c)	63	3.16	.805
	그렇다(d)	56	3.68	.794
	매우 그렇다(e)	38	3.65	.992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전혀 아니다(a)	19	3.14	.713
	아니다(b)	33	3.24	.599
	보통이다(c)	63	3.34	.682
	그렇다(d)	56	3.82	.617
	매우 그렇다(e)	38	3.65	.783
	전체	209	3.49	.714

<표 IV-19> 귀어지 지역적 특성(지인 거주)에 따른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λ	Wilks'	F	df	p	F	df	p	Scheffe
전체	.770	7.087	8.000	.000					
생활만족도						2.452	4	.047	N.S
경제적만족도						11.944	4	.000	c > a d > a, b, c e > a, b
귀어만족도 전체						7.010	4	.000	d > a, b, c

다.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

귀어자의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별 귀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어자의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별 귀어만족도는 Wilks' $\lambda=.818(F=5.362, df=8, p=.000)$ 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 경제적만족도, 귀어만족도 전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아니다($M=3.48$), 보통이다($M=3.57$), 그렇다($M=3.89$)가 전혀 아니다($M=2.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M=4.08$)가 전혀 아니다($M=2.64$), 아니다($M=3.48$), 보통이다($M=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만족도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귀어만족도 전체도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그렇다($M=3.69$)가 전혀 아니다($M=2.71$)보다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M=3.81$)가 전혀 아니다($M=2.71$), 아니다($M=3.26$), 보통이다($M=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별 귀어만족도 기술통계는 <표 IV-20>과 같으며, 중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0>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자주 왕래	N	M	SD
생활만족도	전혀 아니다(a)	11	2.64	1.142
	아니다(b)	28	3.48	.764
	보통이다(c)	68	3.57	.696
	그렇다(d)	62	3.89	.721
	매우 그렇다(e)	40	4.08	.781
	전체	209	3.70	.819
경제적 만족도	전혀 아니다(a)	11	2.79	.820
	아니다(b)	28	3.04	.867
	보통이다(c)	68	3.12	.802
	그렇다(d)	62	3.49	.913
	매우 그렇다(e)	40	3.54	.986
	전체	209	3.28	.905
귀어만족도 전체	전혀 아니다(a)	11	2.71	.770
	아니다(b)	28	3.26	.567
	보통이다(c)	68	3.34	.596
	그렇다(d)	62	3.69	.729
	매우 그렇다(e)	40	3.81	.699
	전체	209	3.49	.714

<표 IV-21> 귀어지 지역적 특성(자주 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
중다변량분석 결과

직무역량	MANOVA				ANOVA			
	λ	F	df	p	F	df	p	Scheffe
전체	.818	5.362	8.000	.000				
생활만족도					9.956	4	.000	b, c, d > a e > a, b, c
경제적만족도					3.683	4	.006	N.S
귀어만족도 전체					9.127	4	.000	d > a e > a, b, c

본 연구에서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관련, 지인거주, 자주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 차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귀어만족도 전체와 하위요인인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만족도 모두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이는 지역적 특성(고향관련, 지인거주, 자주왕래)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귀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4.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는 <표 IV-22>와 같다. 종속변인인 귀어만족도(귀어생활만족도, 귀어경제적만족도)와 독립변인인 도시압출요인(경제적 도시압출요인,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경제적 어촌흡인요인, 심리·환경적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귀어만족도는 도시압출요인($r=.312$, $p<.001$), 어촌흡인요인($r=.385$, $p<.001$), 귀어지 주거환경($r=.233$, $p<.001$), 가족지지($r=.478$, $p<.001$)와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귀어지 갈등($r=.020$, $p>.05$)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변인 간 상관관계

	경제적 도시압출요인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	도시압출요인 전체	경제적 어촌흡입요인	심리환경적 어촌흡입요인	어촌흡입요인 전체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	귀어생활 만족도	귀어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도시압출요인	1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	.422***	1									
도시압출요인 전체	.837***	.849***	1								
경제적 어촌흡입요인	.368***	.307***	.399***	1							
심리환경적 어촌흡입요인	.280***	.570***	.507***	.472***	1						
어촌흡입요인 전체	.377***	.513***	.529***	.854***	.862***	1					
귀어지 주거환경	.281***	.442**	.431***	.137*	.271***	.239***	1				
귀어지 갈등	.116	.315***	.258***	-.034	.136	.061	.208**	1			
가족지지	.339***	.152*	.289***	.305***	.243***	.319***	.245***	.019	1		
귀어생활만족도	.262***	.195**	.270***	.353***	.307***	.384**	.136*	-.033	.496***	1	
귀어경제적만족도	.185**	.233**	.248***	.332***	.115	.259***	.244***	.061	.304***	.369***	1
귀어만족도 전체	.267***	.260***	.312***	.413***	.249***	.385***	.233**	.020	.478***	.808***	.846***

* p<.05, ** p<.01, *** p<.001

나.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단계적방법(Stepwise)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2%($R^2=.320$)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beta=.380$, $p<.001$), 경제적 어촌흡인요인($\beta=.260$, $p<.001$),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beta=.122$, $p<.05$)은 귀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이 높을수록,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이 높을수록 귀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상수)	1.321	.227	5.830***	
가족지지	.350	.056	.380	1.107
경제적 어촌흡인요인	.233	.057	.260	1.195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	.099	.049	.122	1.109
R ² =.320 F=32.230***				

※제외된 변수: 경제적도시압출요인, 도시압출요인 전체, 심리환경적어촌흡인요인, 어촌흡인요인 전체,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p<.05, ***p<.001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 경제적 어촌흡인요인,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이 귀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귀농·귀촌에서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이지흠(2017)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흡인요인과 가족지지가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본 연구자가 2018년 10월 31일 전국자율공동체 워크숍에서 귀어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과 동반하여 귀어난 귀어자는 가족들의 복지, 문화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는 귀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귀어가족들이 우선 어촌에 대한 복지, 문화적 인프라에 만족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어촌의 복지, 문화 인프라를 높이는 것은 가족지지를 높여서 귀어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도시권과 가까운 어촌에 귀

어가 물리는 것을 저지하고 균등하게 귀어 선호지역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진다.

다.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 하위변인 중 귀어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단계적방법(Stepwise)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0.3%($R^2=.303$)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beta=.416$, $p<.001$)와 어촌흡인요인 전체($\beta=.252$, $p<.001$)가 귀어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어촌흡인요인이 높을수록 귀어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275	.268		4.763***	
가족지지	.440	.065	.416	6.782***	1.113
어촌흡입요인 전체	.299	.073	.252	4.101***	1.113
$R^2=.303$ $F=44.837***$					

※제외된 변수: 경제적도시압출요인, 심리환경적도시압출요인, 도시압출요인 전체, 경제적어촌흡인요인, 심리환경적어촌흡인요인, 어촌흡인요인 전체,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p<.001

귀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는 가족의 지지가 개인의 우울감과 비관적 상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며 귀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지흠(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귀어는 개인만의 이주가 아닌 가족지지와 주위의 여건이 동반할 때 귀어의 선택이 성공적인 귀어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어촌흡인요인이 경제적, 심리·환경적 요인과 상관없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귀어를 선택할 때 어촌으로의 긍정적 희망이 귀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 하위변인 중 귀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단계적방법(Stepwise)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8.1%($R^2=.181$)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촌흡인요인($\beta=.253$, $p<.001$), 가족지지($\beta=.187$, $p<.01$), 귀어지 주거환경($\beta=.163$, $p<.05$)이 귀어 경제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귀어지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귀어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5>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경제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168	.321		3.639***	
경제적 어촌흡인요인	.288	.076	.253	3.800***	1.108
가족지지	.218	.079	.187	2.751**	1.157
귀어지 주거환경	.164	.065	.163	2.501*	1.069
R ² =.181 F=15.086***					

※제외된 변수: 경제적도시압출요인,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 도시압출요인 전체, 심리환경적어촌흡인요인, 어촌흡인요인 전체, 귀어지 갈등

*p<.05, **p<.01, ***p<.001

귀어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과 일치하게 어촌흡인요인과 가족지지가 귀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활만족도와 다르게 경제적 만족도에서는 어촌흡인 요인 중에서 심리·환경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어지의 경제적 이익이 동반될 때 귀어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오며 귀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귀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 도시압출요인보다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귀어하기 보다는 귀어했을 때의 안정적 수입을 기대하고 귀어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지를 회수하면서 경제적 만족도 기타의견에 답해주신 응답자들이 많았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안정적 수입을 기대하는데 국가의 정책적지원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았다. 융자금 마련과 같은 지원이 있지만 수협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융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귀어자들이 많았

다. 국가에서는 상담과 교육관련업무만 처리하고 귀어자들에게 큰 경제적 요인들은 수협과 처리하라는 지켜보기에 귀어자들이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만족도에서 가장 큰 영향요인인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이 귀어자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지원과 후속 선행연구들을 통해 귀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논문은 귀어·귀촌에서 귀어자의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귀어지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 중 수산업을 하는 귀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결혼여부에 따른 귀어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령대별에 따라 귀어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30대와 50대가 40대보다 경제적 만족도가 더 높았다. 미혼율이 높은 30대와 은퇴 후 귀어난 50대가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의 지출이 큰 40대보다 경제적 만족도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별, 직장생활 기간별, 귀어진 직업별, 귀어 기간별 에 따른 귀어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귀어 지역별에 따라 귀어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충청남도가 경상남도보다 경제적 귀어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수도권과 거리적으로 가까워 접근성이 쉽고 단기적 수입 창출이 가능한 남시업을 하는 비율이 높아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귀어지 지역적 특성(고향관련, 지인거주, 자주왕래)에 따른 귀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귀어만족도 전체와 하위요인인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만족도 모두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귀어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높았다. 지역적 특성(고향관련, 지인거주, 자주왕래)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

며 귀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셋째,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귀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귀어지 주거환경, 귀어지 갈등요인은 귀어만족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귀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압출요인, 어촌흡인요인, 가족지지요인이 나타났다. 도시압출요인 중에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이 귀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어촌흡인요인 중에서는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촌흡인요인이 높을수록 심리·환경적 도시압출요인이 높을수록 귀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귀어 정착을 높이고, 귀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원과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귀어만족도에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귀어 희망자가 고향과 지인이 있는 지역을 귀어지로 선정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 어촌으로의 합류의 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어업인의 귀어자들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가족지지를 받으며 안정적 심리상태를 가진 귀어자가 경제적 만족도가 높으며 이러한 귀어생활을 하고 있는 귀어자가 귀어희망자들의 모델이 될 것이며, 귀어자를 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지지가 귀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지지가 없는 귀어는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어관련 교육을

귀어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어희망자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MEDRIC, 광주보건전문대학논문집.

강미나 (2007). 노인주거복지제고를위한종합계획수립연구고령자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고미숙 (201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권은희 (2003).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에 관한 연구 : 개인 및 가족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덕 (2003). 농촌지역 인구이동 : 실태·요인·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균 (2012). 중고령 귀농인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숙정 (2014).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김순안 (2012). 갱년기 여성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섭 (2009).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임지은(2012). 귀농·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마상진 (2006).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김현실·조미영 (1992). 중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절망감과의 관계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남인현 (2012). 도시근로자의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 연구 : 창업의지 연구방법론의 응용,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마상진 (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 박광희·한혜경 (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연구.
- 박명현 (2004).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상인 집단 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3). 저소득층의 긍정적 정서 및 우울감과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 및 조절 역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박은경 (2008). 귀농인 이주만족도 조사연구 - 영월지역 은퇴 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08). 귀농인의 이주만족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준모 (2014).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어·귀촌 추진방안, 석사학위논문.
- 박호숙 (2008). 심리적 갈등의 유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 서병숙(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무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송미령 (2006). 살기 좋은 국토 공간 만들기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과제와 실천방안.
- 송미령·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2006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태완·강명진·최정순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우성호 (2014). 귀농·귀촌 결정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6개 시·군을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하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지.

이광남 (2015).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중장기 발전 방안, 해양수산부 최종 보고서.

이미란 (2011).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민관 (2011). 중소도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호(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 정책연구.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한국인구학, 31(2), pp. 77-100.

이종혁 (2012).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 제3차 전문가 세미나] 귀농·귀촌과농촌 주거환경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이지흠 (2017). 귀농·귀촌에서 귀농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찬·김현 (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장동운(1991). 갈등관점과 갈등관리 스타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정승현·심미영 (2014).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 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정철영 (1999). 농업인력의 육성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조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
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주우일·권현철 (2008).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 지표 측정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 지어성 (2010). 농촌지역노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진 (2004). 갈등의 구조와 전략, 두남.
- 허철무·하규수 (2014). 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벤
처창업연구.
- 홍순혜 (1999). 노인에 대한 가족의지지: 가족원 유형별 연구, 한국사회복지
학.
- Buttel, F. (1992). Environmentalization: Origins, Processes and
Implications for Rural Social Change, Rural Sociology.
- Dumitrache, C. G., Rubio, L., and Rubio-Herrera, R. (2017). Perceived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ging & Mental Health.
- Jobes, P. (2000). Moving nearer to Heaven: The Illusions and
Disillusions of Migrantsto Scenic Rural Places, Westport, CO:
Greenwood Publishing Group.
- Ploch, L. A. (1977). The Reversal in Migration Patterns: Some Rural
Development Consequences. Rural Sociology.
- Schwarzweiler, Harry K. (1979). Migration and the Changing Rural

Scene, Rural Sociology.

Smith, M. and R. Krannich . (2000). 'Culture clash' Revisited: Newcomer and Longer-term Residents' Attitudes toward Land Us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Rural Communities in the Rocky Mountain West. Rural Sociology.

Williams and Jobes. (1990). Economic and quality-of-life considerations in urban-rural migr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 “귀어·귀촌에서 귀어자의 귀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검사지가 연구에 잘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학과

지도교수 : 박 종 운 교수님

연구자 : 신 나 혜 석사과정

※ 설문조사 응답 전 동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응답한 설문내용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응답자 확인 서명 : _____(인 또는 서명)

아래 질문의 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다음 질문은 귀어 동기로서 도시압출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경제적 요 인	1. 도시에 미땅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도시의 높은 물가 때문에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도시의 직장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도시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심리적 요 인 / 환경적 요 인	5. 도시의 비쁜생활에 지쳐서 귀어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삭막한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도시에서의 주민들과 관계에 지쳐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도시의 자연과 친환경적공간이 부족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도시의 삶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도시의 환경 오염이 심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 질문은 귀어 동기로서 어촌흡인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경 제 적 요 인	1. 어촌의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창업어가는 퇴직의 우려가 없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업전망이 밝아 보여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어촌에서의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심 리 적 요 인 / 환 경 적 요 인	5. 어촌주민들이 도시민보다 인간적일 것 같아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어촌에서 생활이 심리적으로 여유 로울 것 같아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도시보다 시골에 생활이 더 잘 맞 을 것 같아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어촌생활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귀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기 타 의 견						

Ⅲ. 다음 질문은 귀어지 주거환경(인프라)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편리성	5. 나는 시장(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자녀의 통학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도로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행정관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병원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주거에 쾌적한 곳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기 타 의 견						

IV. 다음 질문은 귀어지 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심리적 갈 등 / 환경적 갈 등	1.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주민 참여 문제로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의 전통문화 때문에 주민간에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주민과 귀어자간의 생각차이를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 파괴로 주민 간에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귀어자의 이주로 마을의 조용함과 쾌적함이 사라지므로 주민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을내의 건축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 타 의 견						

V. 다음은 가족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가 족 지 지	1. 나의 가족들은 나의 귀어결정을 존중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가족은 귀어 후 내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가 귀어를 지지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귀어를 지지했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귀어지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귀어지 지역적 특 성	1. 나는 귀어지를 고향과 관련하여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귀어지에 지인이 있어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귀어하기 전 귀어지에 자주왕래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귀어지 선택에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기 타 의 견						

Ⅶ. 다음은 귀어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생 활 만 족	1. 나는 귀어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어 후 나의 삶이 행복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만 족	3. 나는 귀어 후 나의 소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귀어 후에 경제적 생활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귀어 전보다 소득이 나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기 타 의 견						

VIII.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자

2.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이하 ② 초대졸(재학) ③ 대졸(재학) ④ 대학원졸(재학)

5. 직장생활 기간은 총 몇 년이었습니까? ()

① 1년 이상~10년 미만 ② 10년 이상~20년 미만

③ 20년 이상~30년 미만 ④ 30년 이상

6. 귀어 전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기타

7. 현재 귀어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경남 ② 전남 ③ 충청남도

8. 귀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이상~2년 미만 ② 2년 이상~4년 미만

③ 4년 이상~6년 미만 ④ 6년 이상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협조해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나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원장 교육학박사 강 버 들



위 원 교육학박사 황 미 영



위 원 공 학 박 사 박 종 운

